

#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 Effect of Income on Depression of Korean Babyboomers: Test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Gender

송인욱, 원서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nuk Song(inugi@dcu.ac.kr), Seojin Won(wseojin@dcu.ac.kr)

###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소득,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베이비부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조사한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베이비부머 경우, 소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 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은 여성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경감을 위해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와 남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지지 집단 활용 등이 요구된다.

■ 중심어 : 베이비부머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소득 | 우울 | 사회적 자본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effect of income on depression of Korean babyboomers according to gender. It also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income-depression relationship. Researchers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6th wave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collected in 2016. Researchers found gender differences of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While, in the male model, income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depression, it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o depression of female babyboomers. In addition, a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the female model that advocacy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ctivity moderated the income-depression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differences for policy and service development; in specific, researchers suggest expanding elderly jobs for female babyboomers and support groups for male babyboomers.

■ keyword : Babyboomer |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Income | Depression | Social Capital |

## I. 서론

베이비부머는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총 인구의 14.58%에 해당하는 714만명의 거대한 인구집단이 우리 사회 고령화의 급진전을 견인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웃돌아[1],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인층으로의 합류는 단순한 인구 고령화 문제 뿐 아니라[2], 이들의 노후대비 및 경제 문제, 사회활동 감소로 인한 고독,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3].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노년기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과 관련된 노인빈곤율이며[4], OECD 국가와의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5],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노인세대보다는 훨씬 안정된 공적연금을 기대할 수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교육비와 결혼자금 등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소진하거나 퇴직 후 투자 실패 등의 이유로 은퇴 빈곤층의 위기에 내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베이비부머들도 다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해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높은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려우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당면하게 될 노년기의 경제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6].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소득문제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세대보다 노인들이 가장 낮은 삶의 만족감과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고 있으며[7],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도 가족부양과 자녀 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서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볼 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을 극복하고 적응적 노화를 대비한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4][6-10].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주로 고용불안에 따른 노후 준비나 노후 생활안정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연구이거나[6-8][10], 은퇴에 대비한 정책[4], 혹은 은퇴 이후 사회참여[9]와 같은 사회정책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우울과 관련된 심리사회적인 접근은 드문 실정이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은 은퇴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그들이 맡아왔던 역할의 상실과 다양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11], 이러한 역할상실과 관계의 단절은 슬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온다.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동향을 분석해보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논문 및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5년간(2014-2019)의 논문에 대해 노인,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우울의 키워드로 메타분석한 결과 노인 우울에 관한 연구는 4,246건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211건으로,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노인 우울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체적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여러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고 위기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퇴직 이후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 베이비부머 세대에겐 생산성을 대신할 가치를 찾아주고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9].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모색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나, 베이비부머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연구 역시 드문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남성과 다르게 형성되고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면, 사회적 자본의 결과 역시 다를 것이므로[13], 결국 성별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구조적 위치 차이를 야기하고, 이러한 위치 차이가 사회적 연계망 수준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14]. 최민정(2015)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성별 차이가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13], 경제활동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았던 여성 베이비부머의 소득 특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와 노령기 진입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과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보호 요인으로써 [10],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을 감소시키는지, 또한 성별에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소득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소득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가?  
 셋째, 베이비부머의 소득,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부머와 경제문제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노인빈곤문제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노인집단이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2015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노인이 전체 노인의 51.1%를 차지하고 있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의 53.9%가 빈곤층에 해당한다[15]. 고령화는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대비를 필요로 하며, 더욱이 중고령 가구의 경우 생애 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 대부분이 충분히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어 노년

기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13]. 더욱이 빈곤층에서의 탈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는 비노인층과는 달리, 노인집단은 빈곤층으로 한번 유입되면 탈출이 어려운, 빈곤의 장기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소득중단이 라는 '절벽 시스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보건의료지출, 교육투자, 가족부양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른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5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는 점이 노후 준비 부족과 맞물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가중되는 것이다[10].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적다. 나지나 등의 연구에서 여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16],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과 우울의 비교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노후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6][8][10],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우울

노년기 우울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그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일수록 더 많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다[17].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261명의 조사노인 중 33.1%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답하였고, 그 중에서도 연가구소득이 제1분위인 노인의 50%가 우울경험을 보고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18].

노년기 우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매우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

성 중 성별, 연령, 학력수준, 종교, 주거상태 등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지목되고 있다[10][11][17][19][20].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노년기 우울이 증가하는 시기는 중년기부터이며, 고용안정성 악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자녀 결혼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중년기부터 우울증이 점차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특히 현재 베이비부머의 우울증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2]. 이는 베이비부머나 예비노인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이들의 우울에 대한 예방적 관심은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노년기 우울이 노인세대로의 진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중년기부터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진입전 세대인 중년기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20][23]에서는 중년기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노화불안,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지,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해외의 종단 연구들에서는 중년기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변화 속도의 차이를 고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생활양식, 건강, 삶의 만족도 등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4][25].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노인 우울을 분석한 연구에 비해 드문 실정이며, 이에 일반적인 노년기의 우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예비 고령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실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최근 인적, 물적 자본과 더불어 제3의 자본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거시적으로는 규범(norm), 제도(institution) 등을 지칭하며, 미시적으로는 관계망(network), 신뢰(trust)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개별적 자원이라기 보다 인간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속성을 가진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10], 인간의 관계나 조직의 특징에 따라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는 역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에 자주 인용되는 학자들은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3) 등이다[26-29]. Bourdieu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서로 아는 사람 간의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며, 단체 구성원의 상호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제도화된 자원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26].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조직화됨을 설명하면서, 사회내의 신뢰성과 특정 행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의무, 기대, 신뢰, 제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7].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회과학분야에서 대중화시킨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시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28][29].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3], 19세이상 65세 이하 성인남녀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복지감과의 관계[30], 중년기 및 노년기의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12],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상태[31],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13] 등 다양한 대상층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관련 변인과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 베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에너지로써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및 정당시민단체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활동들이 베이비부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노년기 여성은 전 생애에 걸친 남녀 간 불평등으로 인해 노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성까지 포함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여성에게 적용시키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과 사회적 자본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에 따른 우울 정도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조사된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1회 조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한번씩 짝수년도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이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층화표집법을 활용하여 모집단을 15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읍면부로 층화한 후 각 지역 층 내에서 일반주택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층화하여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표본가구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32].

본 연구에 활용된 6차 조사는 총 9,913조사대상패널(기존패널: 8,993, 신규패널: 920)중 7,893명을 조사하여 79.6%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33].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한 자로 한정하였으며,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한 대상자는 2,479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총 연구대상자는 6,732,460명이다.

####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은 CES-D로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사용된 CES-D는 총 10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느낌이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4점 척도로 답하였다(1: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2: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3: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다, 4: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52이며, 연구진은 총 10개문항을 합한 총점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소득의 측정은 연속변수인 연간 가구총소득을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및 정당시민단체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 조사대상자는 0(거의 활동하지 않음)에서 10(거의 매일 참여함)까지의 응답을 하여, 각 모임에 대한 활동빈도를 사회적 자본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거주지역, 종교 및 주거상태의 6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포함한 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 이상(4)으로 재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부(3)의 구분을 대도시(0)와 대도시 이외 지역(1)으로 재코딩하였다. 종교 변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0, 종교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상태는 “현재 자기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를 얻어 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를 0,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1로 재코딩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TATA 1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이분변수의 경우 빈

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고,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t-test와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평균중심화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수준, 거주지역, 종교, 주거상태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득을 추가하였고, 이후 3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 6가지 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연구대상 중 남자는 43.2%, 여자는 56.8%였다. 남성의 평균연령은 56.79세(표준편차 2.55), 여성의 평균연령은 56.84세(표준편차 2.57)였다. 학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51.4%, 대학교 이상 30.8%, 중학교 11.7%, 초등학교 이하가 6.1%였다.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이 59.1%로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중학교 17.4%, 초등학교 12.5%, 대학교 이상 11.0%순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학력 비율이 낮았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대도시 거주가 46.6%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40.2%, 읍면부 13.2%로 나타났다. 여성도 대도시 거주가 48.3%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37.8%, 읍면부 13.9%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남성 베이비부머는 73.3%, 종교생활을 하는 남성 베이비부머는 26.7%였다. 이에 반해 여성 베이비부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이 47.5%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베이비부머의 주거상태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남성 78.6%, 여성 79.3%).

연평균 가구소득은 남성은 5천80만원, 여성은 4천5백만원 정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했으며, 소득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활동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친목모임의 활동빈도가 가장 높았으며(남성 5.12, 여성 5.22), 2순위로는 남성은 동창회(평균 2.83, 표준편차 2.51), 여성은 종교모임(평균 2.65, 표준편차 3.09)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우울수치는 각각 2.45(표준편차 2.67)와 2.62(표준편차 2.61)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자		여자		t or $\chi^2$
		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연령		56.79	2.55	56.84	2.57	3.22**
학력	초등학교	203,132	6.1	426,558	12.5	166.32***
	중학교	389,583	11.7	591,758	17.4	
	고등학교	1,710,950	51.4	2,012,867	59.1	
	대졸 이상	1,026,397	30.8	372,794	11.0	
거주 지역	대도시	1,550,806	46.6	1,643,179	48.3	0.97
	중소 도시	1,339,715	40.2	1,286,562	37.8	
	읍면부	439,542	13.2	474,237	13.9	
종교	종교 없음	2,440,552	73.3	1,785,609	52.5	92.392***
	종교 있음	889,510	26.7	1,618,369	47.5	
주거 상태	자가 아님	713,724	21.4	706,153	20.7	0.40
	자가 거주	2,616,338	78.6	2,697,825	79.3	
소득 (단위:만원)		5,080.2	3,326.6	4,562.5	3,278.7	5.02***
종교모임		1.78	2.29	2.65	3.09	-6.89***
친목모임		5.12	2.81	5.22	2.88	-0.52
여가문화 스포츠활동		1.56	1.82	1.54	1.91	1.01
동창회		2.83	2.51	1.97	2.01	8.93***
자원봉사		1.04	0.50	1.08	0.69	-1.98*
정당 시민단체		1.02	0.35	1.01	0.24	1.63
우울		2.45	2.67	2.62	2.61	-1.43

\*p<.10, \*\*p<.05, \*\*\*p<.01, \*\*\*\*p<.001

##### 2. 빈곤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전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을 포함한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성별( $\beta=.051$ ), 종교( $\beta=-.116$ ), 주거상태( $\beta=-.117$ )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고, 종교가 없고, 자가소유인 집에 거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남성이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자가소유 집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성별( $\beta=.050$ ), 종교( $\beta=-.114$ ), 주거상태( $\beta=-.108$ ) 외에 소득( $\beta=-.070$ )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18][19]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이 추가된 모델3에서도 성별( $\beta=.054$ ), 종교( $\beta=-.120$ ), 주거상태( $\beta=-.095$ )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친목모임( $\beta=-.185$ ), 여가문화스포츠( $\beta=-.063$ ), 동창회( $\beta=-.065$ ), 정당시민단체( $\beta=-.016$ ) 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활동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은 베이비부머가 참석빈도가 낮은 베이비부머에 비해 낮은 우울감을 보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4에서는 성별( $\beta=.057$ ), 종교( $\beta=-.120$ ), 주거상태( $\beta=-.097$ ), 소득( $\beta=-.044$ ), 친목모임( $\beta=-.185$ ), 여가문화스포츠활동( $\beta=-.073$ ), 동창회( $\beta=-.058$ ), 정당시민단체( $\beta=-.014$ ) 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 3. 빈곤, 우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빈곤과 우울의 관계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투입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의 경우,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델 1에서는 종교( $\beta=-.077$ )와 주거상태( $\beta=-.105$ )가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소득 요건이 추가된 모델 2에서도 종교( $\beta=-.077$ )와 주거상태( $\beta=-.103$ )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 변수가 추가된 모델 3에서는 종교( $\beta=-.079$ )와 주거상태( $\beta=-.082$ )와 더불어 친목모임( $\beta=-.196$ )과 여가문화스포츠( $\beta=-.077$ ), 동창회( $\beta=-.098$ ), 정당시민단체( $\beta=-.025$ )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친목모임과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남성 베이비부머의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남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우울감이 낮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4에서는 종교( $\beta=-.084$ ), 주거상태( $\beta=-.080$ ), 친목모임( $\beta=-.190$ ), 여가문화스포츠활동( $\beta=-.121$ ), 동창회( $\beta=-.079$ )와 여가문화스포츠활동과 소득의 상호작용항( $\beta=.096$ ), 자원봉사활동 소득의 상호작용항( $\beta=.039$ ), 정당시민단체활

표 2. 베이비부머의 소득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51	1.99*	.050	1.95†	.054	2.12*	.057	2.21*
연령	-.007	-0.28	-.014	-0.56	-.011	-0.44	-.013	-0.53
학력	-.044	-1.67	-.023	-0.84	.003	0.13	.003	0.12
거주지역	.006	0.27	.001	0.04	-.016	-0.68	-.015	-0.64
종교	-.116	-4.93***	-.114	-4.86***	-.120	-4.74***	-.120	-4.74***
주거상태	-.117	-4.33***	-.108	-3.99***	-.095	-3.60***	-.097	-3.67***
소득			-.070	-2.21**	-.039	-1.32	-.044	-1.67†
종교모임					-.014	-0.53	-.014	-0.51
친목모임					-.185	-7.27***	-.185	-7.28***
여가문화 스포츠					-.063	-3.10**	-.073	-3.20**
동창회					-.065	-2.44*	-.058	-2.13*
자원봉사					-.024	-1.38	-.024	-1.28
정당 시민단체					-.016	-1.97*	-.014	-2.00*
소득 *종교모임							.000	0.01
소득 *친목모임							-.015	-0.57
소득 *여가문화 스포츠							.030	1.18
소득 *동창회							-.024	-0.83
소득 *자원봉사							.003	0.17
소득 *정당시민단체							-.010	-1.37
F(Prob)F	8.60(.000)		7.77(.000)		13.43(.000)		13.80(.000)	
R <sup>2</sup>	.030		.035		.079		.081	

†p<.10, \*p<.05, \*\*p<.01, \*\*\*p<.001

등과 소득의 상호작용항( $\beta=-.021$ )이 우울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델 1에서는 종교( $\beta=-.146$ )와 주거상태( $\beta=-.131$ )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베이비부머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요건이 추가된 모델 2에서도 종교( $\beta=-.142$ )와 주거상태( $\beta=-.116$ )가 유의하였으며 남성과는 달리 소득( $\beta=-.119$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종교( $\beta=-.152$ ), 주거상태( $\beta=-.108$ ), 소득( $\beta=-.087$ ) 및 친목모임( $\beta=-.173$ ), 여가문화스포츠활동( $\beta=-.056$ ), 자원봉사활동( $\beta=-.053$ )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4에서는 종교( $\beta=-.153$ ), 주거상태( $\beta=-.106$ ), 소득( $\beta=-.081$ ), 친목모임( $\beta=-.174$ ), 여가문화스포츠( $\beta=-.050$ ), 자원봉사( $\beta=-.056$ ), 정당시민단체( $\beta=-.082$ )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시민단체의 상호작용항( $\beta=.078$ )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소득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구분	남성		여성	
	$\beta$	t	$\beta$	t
연령	-.036	-0.99	.006	0.18
학력	-.001	-0.01	.012	0.37
거주지역	-.026	-0.71	-.004	-0.13
종교	-.084	-2.34*	-.153	-4.48***
주거상태	-.080	-1.92†	-.106	-3.13**
소득	.002	0.05	-.081	-2.48*
종교모임	-.030	-0.70	.007	0.21
친목모임	-.190	-4.98***	-.174	-5.25***
여가문화스포츠	-.121	-3.31**	-.050	-1.97*
동창회	-.079	-1.94†	-.017	-0.51
자원봉사	.016	0.52	-.056	-3.09**
정당시민단체	-.013	-0.95	-.082	-4.19***
소득*종교모임	.042	0.91	.004	0.14
소득*친목모임	.018	0.46	-.001	-0.02
소득*여가문화스포츠	.096	3.02**	-.036	-1.37
소득*동창회	-.037	-0.82	.001	0.03
소득*자원봉사	.039	4.06***	-.012	-0.70
소득*정당시민단체	-.021	-1.79†	.078	3.35***
F(Prob)F	41.29(.000)		(.000)	
R <sup>2</sup>	.086		.091	

†p<.10, \*p<.05, \*\*p<.01,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주목하여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함의와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소득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우울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해 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다[2][10][34]. 특히 소득은 남성보다 여성 베이비부머에게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빈곤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만성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베이비부머가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친목모임과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우울정도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베이비부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여러 사회문화활동이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35], 사회적 자본이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

셋째,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빈곤,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당시민단체활동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의 네트워크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다양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소득수준과 우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우울 문제를 예방하고 그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우울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경제적 자본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는 현 노인세대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며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양코르 프로젝트'의 경우 전문퇴직인력들을 공익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회계, 재무, 조직관리, 자금모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과 전략의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렇듯 기존의 전형적인 노인일자리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인적자원 특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루트의 다원화를 위해 사회공헌형 일자리(제3섹터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베이비부머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해 이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중 친목모임, 여가문화 스포츠, 동창회 활동 등이 우울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문화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동로지지집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결국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웃과 지역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연계망을 의미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을 이미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세대의 지지집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와 은퇴로 인해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여가시간의 증가인 점과, 여가활동 유형 중 전문가 수준의 진지한 여가가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지원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참여활동에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동창회와 여가문화스포츠활동의 참여빈도가 여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종교모임, 친목모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가 남성 베이비부머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지집단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에게서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시민활동을 활성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중년이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50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여 베이비부머를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교육, 사회공헌,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0플러스센터는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지역밀착형 시설로, 2014년부터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시립 시설인 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비롯하여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에 각 1곳의 50플러스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사회내 거점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

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광범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데이터 중 일부를 연구목적에 맞게 선별하고 조작하여 2차자료 분석함으로써 베이비부모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변수로 소득 외에 소비수준이나 자산 등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선정에 있어서도 변인들의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가피한 제약이 있다.

둘째, 소득과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를 횡단적 검증 결과판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베이비부모의 경제상황과 우울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 2018.
- [2] 정순돌, 구미정, “우울영향요인: 베이비부머, 예비 베이비부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2권, pp.305-324, 2011.
- [3] 문필동, 이정화,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제27권, 제3호, pp.133-160, 2017.
- [4] 최장훈, 이태열, 김미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 [5] OECD, *2019년 국가별 노인 빈곤율 현황*, 2019.
- [6] 지은정,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노동경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4권, 제2호, pp.365-291, 2018.
- [7] 윤혜진, “베이비부머와 이후 세대들의 관광활동과 행복감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3권, 제4호, pp.333-359, 2018.
- [8] 이영라, 이숙중, “고령층의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해방 전생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7권, 제2호, pp.111-157, 2018.
- [9] 김현정,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3호, pp.115-145, 2018.
- [10] 김수린, 주경희, 정순돌, “소득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5권, pp.103-136, 2018.
- [11] 김진현, “노년기 사회자본의 차이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pp.181-201, 2015.
- [12] 서지원, “중년기 및 노년기 사회자본의 경제적 복지 효과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51권, 제2호, pp.207-218, 2013.
- [13] 최민정,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령대별 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2호, pp.124-163, 2015.
- [14] N. Lin,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Vol.29, No.6, pp.785-795, 2000.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빈곤통계연보*, 2017.
- [16]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29-54, 2010.
- [17] 박미진, “사회적 활동 잠재계층 유형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72권, 제2호, pp.191-214, 2017.
- [18]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19] 박소영,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1호, pp.154-190, 2018.
- [20] 정선아, “중년기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생애학회지, 제8권, 제3호, pp.117-136, 2018.
- [21] 송진영,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2호, pp.164-192, 2015.
- [22] 손용진,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제12권, 제3호, pp.311-339, 2010.
- [23] 이현주, 정은희,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3호,

pp.53-84, 2016.

[24] H. Brockmann, "Why Are Middle-aged People So Depressed? Evidence from West German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97, No.1, pp.23-42, 2010.

[25] H. Tanaka, Y. Sasazawa, S. Suzuki, M. Nakazawa, and H. Koyama, "Health Status and Lifestyle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in Middle-aged and Elderly Japanese Adults: A Seven-year Follow-up of the Komo-Ise Cohort Study," *BMC Psychiatry Research Paper*, pp.11-20, 2011.

[26]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D.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1986.

[27] J.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95-120, 1988.

[28]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Vol.4, No.13, pp.35-42, 1993.

[29]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Book, 2000.

[30] 신미정, 이양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pp.185-207, 2018.

[31] 김진현, "사회자본과 건강행태가 노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 노인과 일반가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에 대한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1호, pp.9-32, 2016.

[32]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http://survey.keis.or.kr> 2019.

[33]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고령화연구패널이용자가이드*.

[34] I. A. Sarmiento and E. V. Cardemil, "Family Functioning and Depression in Low-income Latino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35, No.4, pp.432-445, 2009.

[35] 변진숙, "성공적 노후 결정 요인연구: 2차 베이비부머 여성의 사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제5권, 제2호, pp.231-247, 2015.

저 자 소 개

송 인 옥(Inuk Song)

정회원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원 서 진(Seojin Won)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M.S)
- 2009년 12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 (Ph.D)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보장, 다문화복지